미끄러운 혀와 미끄러지는 지평선

「7명의 큐레이터를 위한 5가지 포용 전략: 힘의 부여, 지원, 협력, 개방, 공정-미끄러운 혀와 미끄러지는 지평선」에서 소개된 '개방'은 여러 가지 언어를 탐색하고 고정된 카테고리들 사이에서 존재하는 경험에 기반한다. 이러한 경험은 이주, 디아스포라, 그리고 비주류 지역사회에서 흔히 발견되는데 이는 이전 서구-근대 지식에 의해 구조화된 경계와 범주는 변경하는 세상과 관계를 맺는 방식을 표현하는 구체화된 경계 지식을 생성한다. 이 시리즈는 포용의 시를 수행하는 영상과 텍스트가 결합된 형태를 보여준다, 예를 들어 단일한 내러티브를 열고 다공성 경계에 주의를 기울이는 행위가 있다. 김성환(데이비드 마이클 디그레고리오와 사운드 협업), 리즈 페러 & 보 타이(니나), 제시 천, 니나 제키치, 이솔라 통, 오쿠이 라라, 나스리카, & PERTIMIG), 그리고 윤 최, 핀 마티타 & 제럴드 사이자의 새로운 커미션을 통해 이 주제를 논할 것이다. 서구 보편주의에 대항하는 「미끄러운 혀와 미끄러지는 지평선」은 '언어', '지식', '전통' 그리고 '기술'의 개념을 우리에게 익숙한 용어로 재정의하며 공유된 지평선으로 다시 상상해본다, 한국, 미국, 말루쿠,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필리핀, 네덜란드 사이와 그 너머로.

주변성: 누가 이름을 정하는가? 누구의 변두리인가? 단순히 중심부 밖의 영역이 아닌 래디컬하게 결정지어진 상태 — 트린 T. 민 하

아랍 반도, 인도 아대륙, 중국 및 유럽을 연결하는 역사적인 해상 무역로를 가로지르는 지역인 동남아시아의 영향권 아래에서 성장한 호키엔 중국계 말레이시아인으로서 '개방'이라는 키워드가 나의 큐레이팅과 연관되는 것은 우연이 아니라 불가피했다. 경쟁적이자 온순한 동남아시아는 종교, 민족, 문화, 언어, 정치 그리고 지리적인 측면에서 짙은 양면성을 띄는 곳이다. 이처럼 통일된 특성이나 내러티브의 부족은 이 지역 밖에서 이 지역을 문화적으로 이해하기가, 즉 가독성이 어렵게한다. 나에게 이러한 가독성에 대한 욕구(및 필요)는 내가 암스테르담으로 이주하기 전까지는 없었다. 이곳에서 코드 전환, 번역, 바하사 인도네시아의 차이점과 뿌리를 공유하는 설명, 바하사 말레이시아, 그리고 타갈로그어, 이 모든 것을 바탕으로 내가 말레이시아인이지만 말레이인은 아니라고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라는 질문이 일상이 되었다. 곧, 나는 가독성에 대한 욕구에 지치고 가려져있음을 권리로 주장하고 싶었다. 이러한 상황은 이중 문화, 디아스포라, 이민 배경을 가진 사람들, 특히 인종화된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에게 나타난다. 여러 갈래길 사이에서 이들은 정체성을 하나의 양식으로, 즉, 해상 동남아시아에서 바다의 흐름과 밀접하게 생활하는 전근대적 방식은 혼합주의, 혼종성 및 지속적인 갱신에 개방된 언어가 발휘되도록 했다. 사람들이 어떤 카테고리에 속할 수 있고 또 속해야 하는 이 세상에서 관계를 맺는 방식은 말레이어 '타나-에어(tanah-air)', 즉 고향과 비슷하지만 땅('tanah')과 물('air')의 개념에 비추어보면 소속과 비소속이란 좀 더 유연하고 근본적인 개념인 것이다.
이러한 언어적 상징과 공명하는 것은 목홍균 큐레이터의 「7명의 큐레이터를 위한 5가지 포용 전략」을 개발하는 데 모티브가 된 윤이상의 『피아노를 위한 5개의 소품』(1958)이다. 윤이상은 동아시아와 유럽의 음악적 특성(형식, 구조, 조직, 리듬, 음정 구성 요소)을 종합한 것이 아니라 불교철학과 유럽 아방가르드 운동 등 보다 폭넓은 철학적 개념을 끌어낸 한국계 독일인 작곡가이다. 구성요소들을 밀도있게[1] 통합함으로써 경계가 없고 구분할 수 없게 하였다. 내가 이 프로젝트를 구성하고 알리는 데에는 이와같은 육상 및 다성 음악 근거가 작업에 기여되고 통찰을 더하는 기반이 되었다.

[1] Moon, Chaekyung. "Isang Yun's Piano Music: Fusion of East and West in Twelve-tone and Atonal Contexts", [1] *International Journal of Musicology* 1 (2015): 175–201. http://www.jstor.org/stable/43858072.

....
가볍게, 수류탄에 키스하는 것처럼
밤의 입에 던지기 전에.
아마도 혀도 열쇠인 것이다.
아, 이런.
— 오션 브엉

「미끄러운 혀와 미끄러지는 지평선」의 세 가지 열쇠
한국, 홍콩, 캐나다, 미국에 거주했고 현재 뉴욕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아티스트 제시 천은 언어 체계, 가독성 그리고 비언어화의 시학을 연구한다. 그의 비디오 「술래」에는 식민지 이전 한국 여성이 달빛 아래에서 추었던 '강강술래'가 영어 자음, 한글 및 영어 텍스트, 억양 컨텐츠 도서의 다양한 색인 페이지, 백색 소음 그리고 단어 검열음과 엮이며 펼쳐진다. 「술래」에서 달은 시스템의 다양성, 언어 그리고 해석할 수 없는 기억을 에워싸며 동시에 전사(轉寫)와 '비언어화'를 구현 함으로 혹자는 밤 중에 소리치며 따스한 그림자 아래에서 지낼 수 있다.[2]

네덜란드 출생 및 기반하는 핀 마티타와 제럴드 사이자는 몰루칸의 식민지 역사와 전통 지식에 대한 공통 관심사를 바탕으로 협업한 프로젝트를 선보인다. 오세아니아와 동남아시아의 교차점에 위치한 말루쿠 섬은 정향, 메이스, 육두구가 독점적으로 발견되어 향신료 섬이라고 불린다. 사고 야자나무는 여전히 말루쿠의 많은 지역에서 발견되고 사용된다. 3D 렌더와 딥 드림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이 아티스트들은 말루쿠의 조상으로 여겨지는 포혼 사구에 대한 신화, 스토리, 그리고 노래 관련 포털을 만들었다.
사구 방언을 되살리는 「디 마타 포혼 : 조상의 다운로드 III」는 사구 정신에 우호적이고 열린 마음으로 야자 나무의 풍성함을 경험할 수 있도록 관객을 초대한다.

최윤의 영상 설치 공간에 들어서는 것은 마치 사물로 전개되는 클라리스 리스펙터의 소설처럼, 배경에서 끊임없이 업데이트되는 여러 개의 화면과 한국과 암스테르담을 중심으로 좌표가 고정되어 있는 것처럼 사람의 의식의 홍수 속으로 들어가는 느낌이다. 그녀의 작업은 빠르게 발전하는 사회와 그 역사적 억압의 중첩되고 지체된 타임라인이 야기하는 부조리한 감정적 갈등을 들여다본다. 예를 들어, 소외감, 어색함 그리고 애착 등 복합적인 감정을 본질적인 측면으로 내세운다. 그는 방향 감각 상실, 다체적 존재로의 변신, 진정한 미신을 불러일으킴으로써 관습적/식민적 관점의 경계를 허무는 것을 목표로 한다. 라익스아카데미에 위치한 그의 스튜디오에서 그와 나눈 대화는, 인종화된 정체성이 직면한 가독성과 타자화의 이중 구속[3], 주변에 대해 완벽히 이해하는 환경에 존재한다는 것에 대한 대화를 나누었다. 이에 더해 비언어적 아티스트 토크를 계획하는 흥미로운 대화를 나누었다. 그의 새로운 커미션 「파고 들다」는 그가 암스테르담에서 거주하면서 행동하고 느낀 것을 포용하며 2023년 초에 첫 선을 보일 것이다.

[2] Chun, Jesse. "SULLAE 술래", https://www.jessechun.com/sullae
[3] Choi, Yun. artist bio. https://www.rijksakademie.nl/en/residents-advisors-team/yun-choi [3]